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3.(화) 행사 시작(14:00) 이후 | 배포 2026. 11. 3.(화)

민관이 함께 자살예방·생명존중 위해 협력

- 민관이 함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협력 논의 -

- 제9차 민관협의회 개최, 정부 6개 부처와 사회 각계 43개 기관 참여 -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공유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3일**(화) **오후 2시 삼정호텔 제라늄홀**(서울시 강남구)에서 정부 부처와 종교계, 재계,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제9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지난 10월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민간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자살예방법」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민관협의체**다.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발굴**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 6개 부처·기관**과 **종교계, 재계, 노동계, 언론계, 학계** 및 **협력기관** 등 **총 4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이 맡고 있다.

제9차 협의회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와 **종교계, 재계, 노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대표자 3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6~'30)**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자살예방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민간위원**들이 **소속 기관**과 **각 분야**에서 추진해 온 **자살예방 활동**을 **공유**하고, **기본계획**의 **성공적**

인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정책 제언**을 나누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BASIC)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을 **목표로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보호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자살예방을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사회 각 분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진 **민간 분야별 사업성과 발표**에서는 각 기관이 **고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추진한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이 소개**되었다.

종교계는 명상·기도를 활용한 자살유족 지원 예배와 사찰 체험(템플스테이), 종교기관 내 상담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활동을 추진하였다.

재계와 **노동계**는 자살예방주간 캠페인, 심리 안정 프로그램, 마음 돌봄 여행 등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언론계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준수와 자살보도 관련 이슈 대응, 사건기자 세미나 등을 통해 책임 있는 보도문화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학계는 심리치유 연극·명상 프로그램, 연민 기반 애도 프로그램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학술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 각 분야**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살예방 활동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인식을 높이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자살예방·생명존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책임지고 실천**해야 할

과제다"라며, "지난 **2018년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해 주신 **민관협의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제언**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함께 길을 열어가는 **자살예방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개요
2.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책임자	자살예방정책과장	박재우 (044-202-3890)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044-202-3899)
			주무관	김혜진 (044-202-3898)
협력 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책임자	정책지원본부장	신은정 (02-3706-0506)
		담당자	인식개선사업부장	위준영 (02-3706-0410)

붙임1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개요**

□ 운영 개요

○ **(운영목적)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발굴,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해** 구성·운영('18~)

○ **(주요기능)** 민간자원 활용한 자살예방사업 지원, 자살예방관련 홍보,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 **(구성)** 정부·종교계·재계·노동계·언론계·학계·협력기관 **총 43개 기관**

※ **공동위원장** : (정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민간)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정부(6)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종교계(7)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노동계(2)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재계(2)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언론계(7)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학계(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협력기관(14)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생명존중교육협의회, 생명의전화, 생명존중시민회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자살유족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사업 추진절차

○ **(복지부)** 협의회 운영 총괄 → **(운영지원*)** 협의회 운영 실무, 공동추진사업 운영 ⇆ **(협의회)** 회의 참석 및 공동추진사업 참여

* 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지원(자살예방법 제12조의4)

붙임2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비전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BASIC)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
목표	자살률 감소 '24년 29.1명 ➡ '29년 19.4명 ➡ '30년 18.9명이하 * 5년 내 자살자 수 '1만명 이하' 달성과 WHO 권고(33.3% 감축) 수준 및 자살률 高 국가의 5년 전후 33.3% 내외의 감소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5대 전략 (B.A.S.I.C)	Basic Safety Net : 생명지킴 안전망 Active Outreach : 적극적 발굴.예방 Structural Support :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Integrated Care : 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 Community Accountability : 국가, 사회 책임 강화

추진 과제

한 명의 목숨도 포기않는 생명안전망 구축	1. 국가자살대응실 신설·운영 2. 자살현장 대응 강화 3. 신속한 치료 지원 4. 지역사회 밀착 관리 연계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 강화	1.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 2. 자살고위험군의 정신의료기관 및 치료 접근성 제고 3. 정신건강 분야 치료와 사회적 지지체계 간 연계 확대 4. 급성기 정신건강 대응 및 입원절차 개선
자살은 '사회적 재난' ⇒ 근본 유발요인 감소	1. (채무) 경제적 시름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포용적 금융 2. (빈곤·고립) 위기 및 고립 가구를 위한 예방 지원 3. (돌봄) 돌봄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
전통적 자살유발요인 관리 고도화	1.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 조성 2. 자살 고빈도장소 관리 3. 자살 수단 차단
적극적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신청주의 극복	1. 의료기관 → 자살예방센터 직권 의뢰 활성화 2. 범정부 지원기관 ↔ 자살예방센터 연계 확대 3. 경제·고립·돌봄 등 위기군 발굴모형 고도화 4. 복지·금융 등 서비스 신청 지원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전략 마련	1. 청소년 2. 범죄피해자 3. 특수직군 4. 유족 지원
AI·데이터 활용 자살예방 정책 관리 고도화	1. 수집 정보 확대 및 연계 강화 2. 자살 원인·경로 분석을 위한 연구분석 활성화 3. 데이터·AI 활용, 자살예방 활동 수행
국가 지자체 책임 강화	1. '목숨 살리는 정부'를 위한 범정부 역량 총동원 2. 국가-지역 생명안정망 지원·관리 복지부 3. 지방정부 자살예방 대응 역량 강화
민관협력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1. 민관협력 2. 생명존중 문화조성